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는 하늘의 생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2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 가족이 붙잡아야 할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생명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부터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신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방황하던 여인에게 주님은 단비와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욕망을 속에서 누구에게 생수를 얻어야 할지 막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마치 봄비에 눈이 녹아 대지를 적시듯,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부활의 계절에 우리 서림의 모든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하늘의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삶의 모든 갈증은 사라지고 영생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삶 속에 가득 흘러넘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사함 받고 은혜 입은 자』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7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진경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설령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완악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그 자리에 올랐고,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렸으나 그 역시 자신만이 아는 치명적인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감추어진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서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고 통곡하며 자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성군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결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신앙적 정직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4월, 우리 서림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오직 정직한 고백 위에 임하며,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든 허물을 씻어내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한 주간도 거룩한 본질을 회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9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에는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의도를 품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은 명백히 후자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 해코지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응답하시며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둘째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묻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갈게 될 것"이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시험을 지해와 권위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의심 섞인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원인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품을 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서림의 모든 가정이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매우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고쳐주시고, 동시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정작 진리를 바라볼 줄 모르는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려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고, 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일어난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바라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이적을 비난하거나 사건 자체를 거부하며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눈을 뜬 사람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았고, 진실을 증언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축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나의 이익이나 명예 혹은 소유에 해가 될 것 같아 아는 듯 모르는 듯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걷는 용기에 있습니다. 출교를 각오하고 진리를 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림의 모든 가족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출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4월의 마지막 주, 우리 가정이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사랑의 본질,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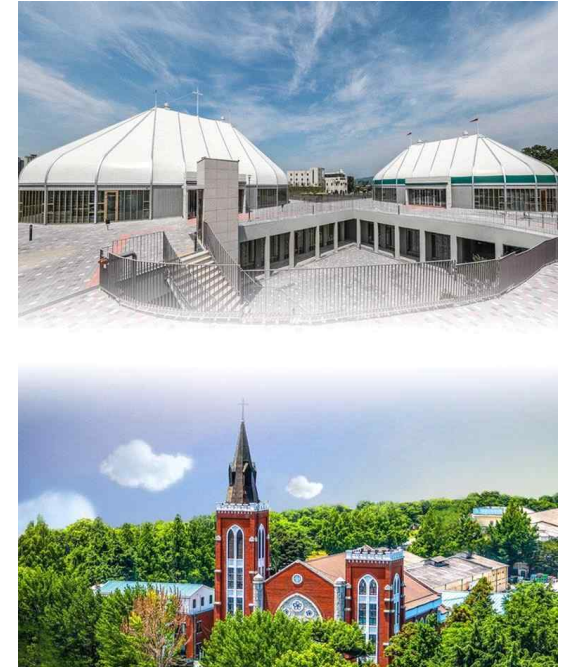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네 가지 사랑』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의 층위를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통찰합니다. 그는 사랑을 크게 '필요-사랑(Need-love)'과 '선물-사랑(Gift-love)'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이 '필요-사랑'의 전형이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선물-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애정이나 우정, 남녀 간의 예로스 같은 '자연적인 사랑'들이 그 자체로 고크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질서 아래 놓이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경계합니다.

루이스의 통찰 중 가장 엄중한 대목은 "인간의 사랑이 신(神)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곧 마귀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보다 앞서게 될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조종하려는 무서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빛 아래서 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녀의 인생을 구속하고 상처를 주는 집착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자족할 수 없으며, 오직 거룩한 은혜의 통제 속에 있을 때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필요-사랑'의 단계를 넘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선물-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림교회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서림의 모든 가정이 자신의 사랑을 과신하기보다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먼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견고히 자리 잡을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감정을 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사랑'으로 서로를 넉넉히 품어주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가지 사랑(The Four Loves)』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